

지상 법석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9)

其一 軟衣美食 切莫受用
(기일은 연의미식을 절막수용하라)
自從耕種 至于口身 非徒人牛 功力多重
(자종경종에 지우구신히 비도인우의 공력다중이라)

둘째, 자기 재물 아끼지 말고 남의 재물 탐하지 말지이다.
삼악도 괴로운 길에는 탐하는 업이 첫째요 육바라밀 제도론 중에는 보시행이 첫째라.

첫째,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부디 받아 쓰지 말지이다.
밭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먹는 것, 입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때에 뭇 생명들의 손상도 한량없거늘 상대가 수고한 공으로 내가 이로운 것도 오히려 그러려니하기 어려운 데 하물며 다른 목숨을 죽여서 이 몸을 살리는 게 어찌 차마 견딜 일이겠는가

來無一物來 去亦空手去
(래무일물래오 거역공수거러)
自財 無無志 他物 有有心
(자재도 무런지어든 타물에 유하심이리오)

農夫 每有飢寒之苦 織女 連無遮身之衣
(농부도 매유기한지고하고 직녀도 연무차신지의인대)
況我長遊手 飢寒 何勝心
(황아장유수하니 기한을 하염심이라)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자기 재물에도 연연할 게 없거든 남의 재물에 어찌 마음 두라
만반으로 갖춘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만이 이 몸을 좇을 것이라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어도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사흘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
되어도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에 티끌이 되느니라

농부도 매양 춥고 굶주리는 고통 속에 지내고 배가는 여인도 늘 몸을 가릴만한 옷이 없는 데 하물며 나는 오래일하지 아니하니 주리고 추운 것을 어찌 싫다 할수 있랴. 부드러운 옷,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그 은혜 무거워 도를 달아내고 해진 옷에 나물 밥은 시주 은혜 가벼우므로 반드시 음식이 떨어지니 금생에 이 마음 밝히지 못하면 풀 한방울조차 소화하기 어렵느니라

三途苦本因何起 只是多生貪愛情
(승할, 삼도고본인하기오 지시다생탐애정이라)

第三 築根本果樹 松落草衣 遮色身
(승할, 재근목과위기장하고 송락초의차색신이오)

我佛衣蓋生理足 如何善積長無明
(아불의우생리족커늘 여하축적장무명인고)

계승으로 말하노라, 풀 뿌리 나무 열매로 주린 향차 달래고 술가지 풀 옷으로 몸을 가리는데 노니는 학과 푸른 구름 몇 삼아 높은 외 그윽한 골짜기에서 여생을 보내노라.

계승으로 말하노라. 삼악도 고통은 본래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만 여러 생애 탐애한 정이로다. 우리 부처님의 발로 밟아 졌던 것을 어찌 재물 쌓아 무명을 기르려나고

其二 自財不吝 他物莫求
(기이는 자재불인하고 타물막구어다)
三途苦上 食業在初 六度門中 行檀居首
(삼도고상에 탐업재초요 육도문중에서 행단거수니라)

其三 口無多言 身不輕動
(기상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어다)
身不輕動則定業成 口無多言則善業成
(신불경동즉식안성정업오 구무다언즉선업성해니라)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볍게 굴지 말라
몸이 가벼이 움직이지 않은 즉 어지러운 마음 위에 선정이무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안으로 찾은 즉 어리석음 되돌려 지혜이루리라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참 이치는(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키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음탄 가볍게 굴어서는 안된다.

身乃災本 不應輕動
(신내재본이니 불응경동어다)

셋째,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가볍게 굴지 말라
몸이 가벼이 움직이지 않은 즉 어지러운 마음 위에 선정이무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안으로 찾은 즉 어리석음 되돌려 지혜이루리라
실상은 말을 여의었고 참 이치는(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입은 화가 드나드는 문이니 반드시 엄정히 지키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음탄 가볍게 굴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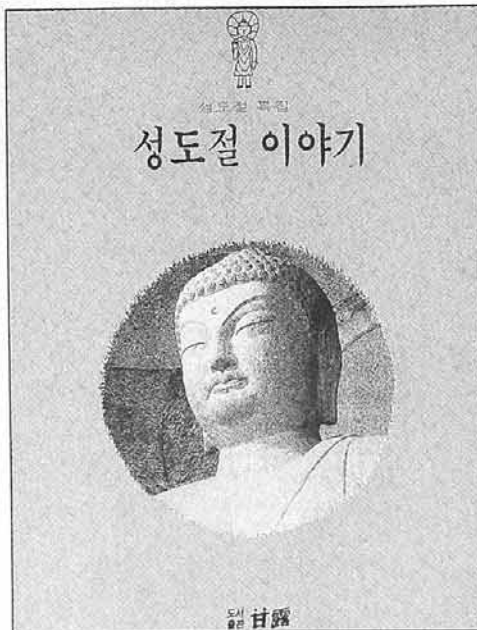
성도절 법회때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법회 설범자료및 범보시 책자 보금안내

성도절 법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성도절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제1부 발원문
1. 성도절 발원문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1. 예언은 적중하고
2. 왕궁에서 숲으로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4. 신세벽에 성취한 깨달음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제4부 성불의의 길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2. 앞서 간 구도자들
1) 앙굴리말라
2) 용녀의 성불
제5부 성도제의 노래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200권이상 주문시 인사말, 법회안내 등을 추가로 넣어서 인쇄하여 드립니다.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1권당 1,000원
크기/4x6판
책표지에 사찰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미리 접수 바랍니다.

우리말 지상경 (범보시판)

- 크기/4x6판
범보시가격/1,500원
편집/가로쓰기
크기/국판(양장제본)
범보시가격/3,000원
편집/세로쓰기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범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200권이상 주문시)

〈온라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문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법륜BD 1층
☎ (02)723-4306~7 FAX (02)738-8682

'고맙습니다' 한 마디 속에도

우롱 스님 <출산 화성선원 조실>



불교인들이 불교에 받을 몫이 아니라 할 주춧돌이 세가지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을 부처님으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가족을 부처님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천이 잘 안됩니다. 가족을 부처님으로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사회 전체와 모든 법계의 유정물(有情物)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잘못 놓은 주춧돌

가정에서 내외간이라고 임의롭게 한 마디씩 내뱉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어떻게 꽂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이 벌나래 가슴에 딱 꽂혀서 다른 때처럼 잘 풀리지 않는 걸 여자처럼 겪었을 겁니다. 바깥 어른들도 평소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유난히 가슴에 사무쳐 감정이 솟구친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결(冤結)의 씨앗입니다.

이 원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의 과학자들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이론적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소릴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에 '내다 내다' 하는 자체가 하나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수 많은 시간동안 수 백번 나고 죽고 하면서 식물, 벌거지, 짐승을 거쳐 사람이 되어 수 백번 바뀌어진 용심(用心)이 내다 내다 하는 이 존재입니다. 현재 내 용심이 아무게 한 사람의 용심인 줄 알지만, 여기에는 벌레, 짐승, 인간 때의 용심이 터져나온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육체의 행동에 몇 백번 죽었다가 나고 한 벌레, 짐승의 행동이 여기에서 터져나오니, 지금 우리가 아무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靈)과 육체의 행동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착각이 주춧돌이 되어 있으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착각 속에 돌아갈 수 밖에 없죠.

우리의 행위가 전생의 행동과 그대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이 버릇과 행동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금 여기에서 짓고 있는 잘못된 관행과 습관은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이 버릇을 고쳐나가는 사람, 항상 말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향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걸 마하반야바라밀(摩訶般若波羅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체는 '반야'입니다. 반야는 '진리와 실천과 결과'라는 말이 합한 말입니다. '마하반야'는 크게 남보다 뛰어나게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마하반야바라밀은 남보다 뛰어난 끊임없는 노력으로 피안의 지 언덕으로 나아가는 뜻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에서 벗어났을 때 불교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불교인은 언제나 마하반야바라밀에

서있는 동안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향상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불교인 자격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탈하고 제자리걸음 또는 후퇴생활을 할 때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승보살의 길

그리고 보살의 실천은 나 혼자만이 해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화생이 되고 뒤로 물러나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을 밀어드리고 성취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성문(聲聞) 연각(緣覺)이나 이러한 과(阿羅漢果)를 얻은 보살은 무여열반(無餘涅槃)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승보살의 실천자는 유여열반(有餘涅槃)에 서 있지 무여열반을 바라거나 들지를 않습니다.

무여열반은 생사의 괴로움을 여윈 번뇌장을 끊은 상태로서 현재의 신체까지 멸해 없어진 곳에 나타나는 경지입니다. 반대로 유여열반은 자신의 수행으로 고(苦)의 원인 번뇌는 끊었으나, 아직도 과거의 업으로 받은 신체는 멸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소승의 사람들은 무여열반을 바라지만, 대승의 사람들은 유여열반에 머물러서 자기가 깨친 차원을 주위 사람에게 전부 알려드려서 해탈 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대승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이 유여열반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대승의 보살행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안된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화생이 되더라도 곁의 사람에게 물질적 보시를 하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서 나는 차라리 진흙 바다에서 고생을 해도 타인을 위해주는 행위가 바로 보살행입니다.

흔히 불교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라면 절이 있어야 한다고거나 그림이라도 불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불교인이라고 하면 으레히 그게 먼저 있어야 개인과 단체의 실천이 이루어 진다고 하는 착각이죠.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영원히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상

이 떨어져 나가야 진정한 불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법을 꼭 스님네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자들이 모여 서로 어떤 기회에 불교에 받을 몫을 받고, 지금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런 대화를 나눠 서로 깨우쳐 주는 게 바로 설법이고 부처님 제자가 모이는 설법장인 것입니다. <금강경> 속에 나오는 상(相)이 바로 우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 내, 아를,